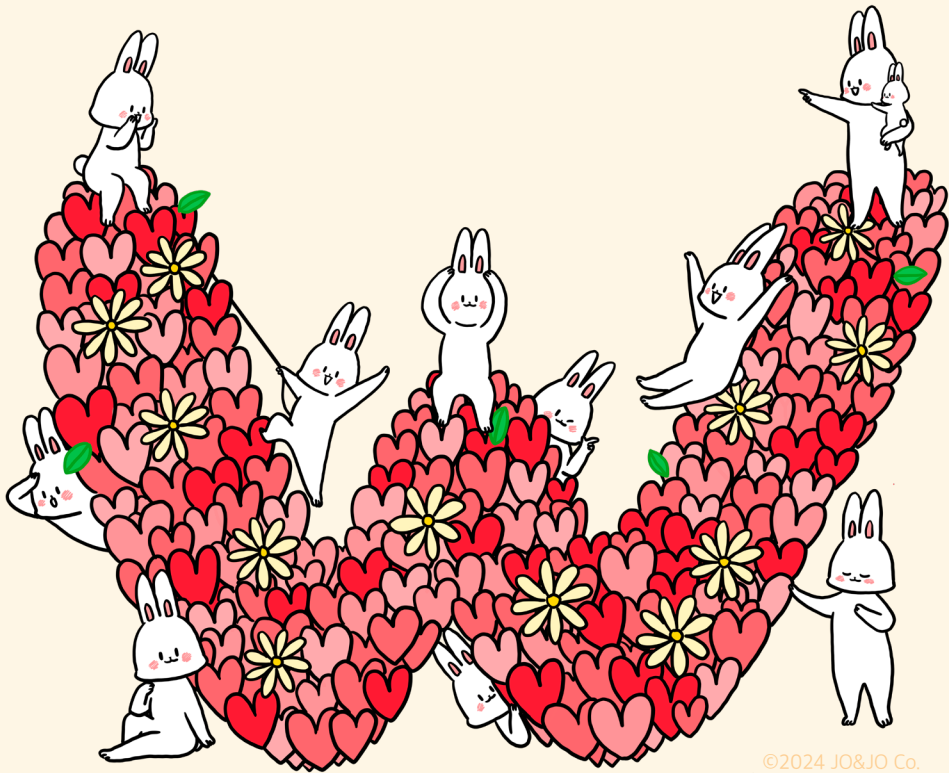


더 스토리에게 의상을

2024년 상반기호
NO.155



©2024 JO&JO Co.

더 스토리

2024 W액션나눔 캠페인 이야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여성 소상공인 이야기

현장 속으로

미래를 위해 여성에게 투자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달라야 하니까!
기억과 기록, 여성운동의 역사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카이브센터 정혜지 센터장
연대치대여동문화 주역들

한국여성재단, '접촉지대(contact zone)'를 생산하다



이현재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 교수

언어학에서 '접촉어(contact language)'란 소통이 필요한 서로 다른 원어민들 사이에서 발달한 즉석 언어를 가리킨다. 생물학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을 '이행대 ecotone'라고 부른다. 여러 종이 얹히는 이행대는 생태학적 진화적 역사적 다양성의 장소이기에 이 지역에서는 하나의 종만을 생각할 수 없다. 이행대는 모두 서로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방해받지 않고 접촉할 수 있는 공간 즉 '접촉지대'인 것이다. 이 접촉지대에서 서로 다른 종들은 서로 얹히고 살아가며, 관계 속에서 서로의 다름에 응답하면서 자신을 변형시킨다. 접촉지대는 질서정연하거나 평화롭지만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로의 다름에 주목하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다. 관계 속에서 창조적 연결이 생산될 수 있는 곳이다.

나는 오래 전부터 한국여성재단이 '접촉지대(contact zone)'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처음 한국여성재단에 발을 디딘 것은 2018년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대한 페미니즘의 흐름이 일어날 때였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 거대한 운동 흐름은 언뜻 보기에 하나의 흐름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서로 다른 색채와 모양의 물방울들이 모인 집합체이다. 당시 그 흐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여성혐오에 대해 함께 고민했지만 페미니즘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두고는 첨예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 때 '여성회'라는 접촉지대를 마련해 준 것은 바로 한국여성재단이었다. 아직도 눈에 생생하다. 우리들의 만남은 마냥 기쁘거나 행복하지만

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양한 의견들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과 접촉하기 위한 몸짓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뿐만이 아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운동을 후원자들과 연결시키는 일을 꾸준히 진행했다. 이것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갖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여성재단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통해 다양한 이슈와 입장을 갖는 다양한 단체를 후원자와 연결시켰다. 매우 중요한 사안을 이슈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을 위한 후원을 받기 어려운 여성운동 단체들은 사실상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다. 바로 이럴 때 여성운동 단체들은 한국여성재단의 심폐소생술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23년만 하더라도 12개의 단체가 한국여성재단이 마련한 접촉지대에서 숨 쉴 수 있었다. 부산 여성영화제, 쿼어 페미니즘으로 대중문화 읽기, 달리보는 성-인권/알아가는 성-인권의 프로그램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을 뿐 아니라 38여성의 날 행사도 이루어졌다. 한국여성재단이라는 접촉지대에서 활동가들은 체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적절히 쉬고 치료받을 수도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한국여성재단이라는 접촉지대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2024년에도 우리는 접촉지대에 뿌리내린 생명들에게 거름을 주고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올해도 성평등조성사업을 위한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성평등기금 모금은 아주 작은 단위의 개인들이 주축이 되는 행사이다. 누구라도 접촉지대의 생명들을 풍성하게 하려는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다. 처음에 친구들에게 모금 링크를 수줍게 내밀었던 기억이 난다. 그 때 왜 그렇게 주저주저했을까. 여러분 중 누구라도 접촉지대를 만드는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접촉지대에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 또 얼마나 다양한 종의 생명을 생산해 낼 것인가? 생각만으로도 가슴 설레지 않은가?

Contents

여는 글	한국여성재단, '접촉지대(contact zone)'를 생산하다 이현재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회 위원 / 서울시립대 교수	2
더 스토리	2024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 : 기부 액션으로, 함께 성평등! 2024 W액션나눔 캠페인 이야기 여성 소상공인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V : "우리 가게, 이대로 괜찮을까?"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여성 소상공인	4 10
현장 속으로	68차 NGO CSW 포럼 참가 : 미래를 위해 여성에게 투자하세요! We are Future Makers 3기 오프닝 파티 : 우리의 미래는 달라야 하니까! 2024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킷오프! : 기억과 기록, 여성운동의 역사로	14 17 20
만나고 싶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내 손안에! 아카이브센터 정혜지 센터장 뜨거움보다 따뜻함,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연대치대여동문화 주역들	22 24
재단소식	재단활동 2024년 1~6월 기부자 명단 2024년 1~6월 수입과 지출 2024년 1~6월	26 30 32

- ♡ 후원 농협 369-17-005283 / 국민 079-01-0405-971 (한국여성재단)
- 📄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 📱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 📷 인스타그램 @womenfund
-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womenfund>
- 📍 해피빈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딸들에게 희망을 2024년 상반기호 NO.155 *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베니(인스타그램 @benny_licensing)

발행인 장필화 편집인 노지은 기획·편집 나눔기획팀 발행일 2024년 8월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주소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대표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 그래픽오션

기부액션으로, 함께 성평등! 2024 W액션나눔 캠페인 이야기

더 스토리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성평등사회를 향한
또 하나의 액션

6월이면 어김없이 한국여성재단과 함께하는 여러분께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2024년은 <W액션나눔캠페인>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성평등 사회를 향한 또 하나의 액션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민토끼 '베니'와 함께



차별과 혐오, 폭력이 없는 사회를 위한 성평등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2024년은 국민토끼 '베니'와 함께하였습니다.

귀가 큰 토끼 캐릭터인 '베니'는 구경선 작가님이 어릴 적 청력을 잃고 시야가 좁아지는 망막색소변성증까지 앓게 되면서 자신을 대신해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게 된 캐릭터입니다. '베니'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위해 큰 귀를 가진 것처럼, 한국여성재단이 더 많은 여성공익단체 활동가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 '베니'와의 이번 협업이 더 뜻깊습니다. '베니'는 다양한 여성들을 응원하고 캠페인을 상징하는 이미지들과 더불어 기부자들에게 전달할 굿즈 제작에 함께했습니다.





성평등기금의 의미

<W액션나눔캠페인>은 성평등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대표 캠페인입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성평등’이라는 주제가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페미니즘 백래시 현상은 성평등 이슈를 과장되거나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논의 자체를 꺼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여성재단이 성평등기금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22년 동안 지속해온 이유는 여전히 성 차별이 존재하며,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여성공익단체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꾸

려가며 애쓰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들이 여성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성평등 사회를 꿈꾸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성평등기금은 여성운동이 성장하고 이 사회에 지속 가능한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시민들이 성평등기금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며 모금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여성운동의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성평등스토리

2023년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진행되는 202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13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13개 단체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바라며, 그 중 3개 단체의 성평등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교문 밖을 뛰어넘는 여성들 ‘페이지’

페이지는 신생여성단체 & 차세대여성운동 분야에서 선정되어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예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웹툰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자기표현 능력 향상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페이지는 성평등기금으로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과 함께 인스타툰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습니다. 참여 청소년들이 예술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각자의 아픔을 치유하기를 바라며,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기록한 이야기가 모여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응원과 공감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 페이지 활동가 인터뷰 중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밀착지원과 성평등 취업규칙 만들기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는 202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주제 분야에서 선정되어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성평등 취업규칙 적용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성평등기금을 지원받아 일터 고충상담과 성평등 취업규칙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70%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회사에서의 적절한 대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 안의 직장 내 성희롱은 선택사항이고 육아휴직 복귀 후에 성차별을 겪는다던지, 성희롱 신고 후에 해고가 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채용부터 퇴직까지를 담은 성평등 취업규칙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 서울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인터뷰 중



여성 폭력 대응 현장 활동가 워크숍 진행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는 202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정주제(여성과 아동 폭력 예방 및 해결 분야)에 선정되어 여성 폭력 대응 현장 활동가 전국 워크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예방,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여성폭력대응 현장 활동가들이 상호 이해를 통해 배우고, 연대를 통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3개 단체의 성평등 스토리는 한국여성재단의 홈페이지, 소식지, 뉴스레터, SNS 등 다양한 채널과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와 함께

2024년 <W액션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이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응원하고 사회의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기금이어서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기부동기를 밝혔습니다. 그중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기부자님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이슈도 있고, 양성평등기금 같은 정부 예산도 줄었다고 들었어요. 이런 힘든 시기일수록 재단이 여성 단체 지원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소액이지만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 2023, 2024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 기부자, 김원모님

뉴스나 매체에서 심심찮게 여성관련 범죄와 피해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을 통해 성평등기금 조성을 위한 W액션나눔 캠페인을 알게 되면서 아주 작은 도움이지만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2024 W액션나눔캠페인 기부자, 서은미님

한국여성재단의 오랜 파트너기업인 유한김벌리는 올해도 사원들이 함께 성평등기금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유한김벌리 기금은 2025년 성평등 사회조성사업의 신규 공모 주제인 '성평등한 돌봄사회 조성'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마무리

2024년 <W액션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캠페인은 종료되었지만, 내년 성평등조성사업을 위한 기금 모금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 많은 여성공익단체의 활동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사회에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이들이 사회에서 주축으로 활동하는 데에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성차별 없는 기부문화 확산과 성평등기금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온라인 참여(QR코드)

성평등기금 기부 참여 방법: 나눔계좌(농협 1279-01-000251)

성평등기금 기부 문의: 나눔기획팀 070-5129-5442

글 -나눔기획팀 복금희

여성 소상공인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V 사업을 소개합니다

더 스토리

“우리 가게, 이대로 괜찮을까?”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여성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My Future, My Business IV> 개강식 단체사진

지난 5월 22일 화창한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에, 40명의 여성 대표가 모였습니다. 인천, 강원, 강진, 부산, 제주까지 전국 곳곳에서 비행기와 기차를 타고 이동해 “My Future, My Business IV” 개강식으로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여성재단과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V(이하, 마이퓨처 마이비즈니스)>는 이름처럼 여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사업의 첫 포문은 디지털 역량강화 그리고 여성 리더십 교육 과정의 개강식이 열려주었습니다. 7주 동안 여성 대표님들은 온라인으로 때로는 대면으로 온라인 마케팅에 관한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어떻게 여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약 40%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은 동네 구석구석에서 작고 소중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호흡하는 경제 생태계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대부분 ‘대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금리 인하와 같은 대출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소상공인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특히, 저자본으로 창업하는 여성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느라 하루가 모자라거나, 안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여성 소상공인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어려움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My Future, My Business의 변천사

JP모간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My Future, My Business>는 벌써 네 번째 회기를 맞았습니다. 1기부터 4기까지 사업 대상과 지원 내용은 당시의 상황과 평가를 바탕으로 변화해왔습니다.

다수 종사하기 때문에 사업 유지를 위해 온라인 전환과 디지털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 마이퓨처 마이비즈니스는 디지털 전환 교육과 개별 컨설팅 지원에 집중하게 됩니다.

1기 2015년 사업이 시작할 때는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소외에 초점을 맞춰, 이주여성 창업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소상공인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후원처인 JP모간이 있었습니다. JP모간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국여성재단과는 여성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며 기업은 사회적 역할에 관한 이해를, 재단은 전문적인 지원역량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2기 이때 어렵게 창업을 실현했다라도 3년 이내 폐업하는 기업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2018년에는 이주여성의 창업 이후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3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성 소상공인은 음식업과 서비스업에

My Future, My Business IV 지원방식

올해 시작되는 마이퓨처 마이비즈니스 4기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에 대한 다양한 여성 소상공인의 수요를 확인함과 동시에, 팬데믹으로 인한 여성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과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4기의 첫 단추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총 5회로 운영되는 이 과정은 디지털 역량 수준에 맞게 도전/성장/전문반으로 나뉘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도전반은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고객 혹은 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성장반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연습을 합니다. 고객이 보기 편한 기업 소개, 각 플랫폼을 어떤 컨셉으로 운영할 것인지 등을 구상합니다. 마지막, 전문반은 본격적인 카피라이팅 연습과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배웁니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과 투자를 통해 더욱 장기적인 사업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사업을 스스로 설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형성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지만, 사업 개선과 성장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참여자에게는 컨설팅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은 업체별 1:1 컨설팅과 사업장 개선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 즉, 솔루션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컨설턴트는 교육에서 다루지 못한 각 사업의 세부적인 개선사항을 대표와 함께 찾고 솔루션을 만듭니다. 솔루션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합니다. 교육,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솔루션 비용 지급까지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성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생길만한 과정으로 보이겠지만, 사업 참여자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 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하고, 그동안 살펴보지 못한 자기 사업장의 부족함을 찾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변화된 내일을 위해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선 참여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교육]	[컨설팅]	[솔루션 비용 지원]
디지털 역량을 쌓고 매출 증대를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업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합니다.	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준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5회) 여성 소상공인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별 컨설팅(5회) 업체 유지/강화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전환 기기 및 사업장 개선 비용 약 400만 원 지원 컨설팅 결과에 따라 구매 물품 확정

<My Future, My Business IV> 지원 절차



오늘날 전 지구적 복합위기 위기 상황에서 특히, 여성 소상공인은 돌봄 노동과 사업장 운영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빈곤에 처하기도 하고, 건강이나 안전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는 여성들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여성 소상공인분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표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여성 소상공인들이 마이 퓨처, 마이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과 경영 능력을 배워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개강식 축사,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



여성 소상공인, 우리가 되는 시간

마이퓨처 마이비즈니스 4기 개강식에서는 참여자들의 자기소개가 이어졌습니다. 40명의 여성 대표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모두 담아내면 책 한 권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또한, 바쁜 일상에서 자신과 우리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던 여성 대표님들은 사업을 소개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며 여성 소상공인으로서 '우리'가 되어갔습니다. 식당, 카페, 미용실, 업사이클링 브랜드 등 업종과 지역은 모두 달랐지만 성장하고 싶은 마음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쁜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날 행사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을 주체하는 이화리 더십개발원의 김유리 원장님과 한국여성재단의 장필화 이사장님, 그리고 JP모간의 박라희 본부장님이 축사를 해주셨고, 수강생 답사는 알록달록협동조합의 신선화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7주간의 교육을 마친 여성 소상공인들은 곧 수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그동안 쌓은 역량을 사업장에 녹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어떤 분들을 컨설팅 과정을 밟으며 다시 학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 속에서도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은 여성 소상공인과 그들의 사업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글 - 지원사업 2팀 안예슬

68차 NGO CSW 포럼 참가 미래를 위해 여성에게 투자하세요!

현장 속으로



전 세계 필란트로피 기금 중
여성을 위한 지원은 2% 미만인, 사실 들어보셨나요?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2024년 세계 여성의 날 주제로
“미래를 위해 여성에게 투자하세요(Invest in Women: Accelerate Progress)” 슬로건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 달성을 위한 자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3월 10일~17일 뉴욕에서 열린 NGO포럼(NGO CSW68 Forum)의
한국여성재단 참여 이야기를 전합니다.

*Invest in Women
: Accelerate Progress*

NGO CSW 포럼이란?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는 유엔 회원국, 유엔기구 및 NGO들이 함께 모여 성평등 실현과 여성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글로벌 기준과 규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국제기구로 매년 3월 초 뉴욕 유엔 본부와 그 일대에서 회의가 개최됩니다. 회의 프로그램은 공식회의, 사이드 이벤트, NGO포럼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며, 이 중 NGO포럼은 공식회의 기간 동안 다양

한 NGO 여성단체가 직접 행사를 주최하고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올해 NGO포럼은 글로벌 시민 사회, 비정부 기구, 페미니스트를 위해 조직되어 패널 토론, 워크숍, 전시회, 부대행사 등 750개의 다양한 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포럼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여성 단체와 풀뿌리 운동의 목소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각자의 경험과 도전 과제,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페미니스트 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Resourcing Rights: Sustaining Feminist Activism in Asia & Pacific

한국여성재단(KFW)은 프로스페라(Prospera: 세계여성재단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Women's Fund))를 통칭하는 이름의 전 세계 47개 회원 재단 중 하나입니다. NGO 포럼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9개 여성재단이 참여해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기금 조성을 통해 페미니즘 운동을 강화한 경험을 나누는 세션을 가졌습니다. 각 여성기금이 여성운동을 지원하고 여성단체 파트너들과 함께 일한 경험과 페미니스트 운동의 미래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해야 할 핵심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포럼은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6개 재단에서 주제발표를 하였고, 참가자들과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는 방식

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노지은 사무총장이 젠더기반 폭력을 주제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삭감의 국내 상황을 전하고 재단이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업 등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때마침 한국여성재단에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으로 SOS(Save Our Safety) 모금캠페인을 진행하는 시기로, 시민들의 기부 참여로 만들어진 기금의 의미와 함께 여성이 안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한 사례를 전달하고 여성운동의 '벚바리'로서 여성기금 자원의 중요성, 긴급성, 지속성에 대한 고민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68차 NGO CSW 포럼 웹배너



프로스페라 ANP 포럼 발표



변화를 위한 여성기금 조성하기 Funding Movements to Make Change

다양한 세션 중 기억에 남는 주제는 <Feminist Financing Practices: Funding Movements to make Change 페미니스트 기금 조성 관행: 변화를 위한 기금 조성 운동>으로 펀드제공자와 페미니스트 운동이 어떻게 협력하여 기금 지원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세션이었습니다. 페미니스트 운동 연합, Leading from the SOUTH 컨소시엄, Women's fund Asia, 레드 엠브렐라 펀드, 네덜란드 외교부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후원처와 여성재단이 어떻게 협력하여 페미니스트 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지, 신뢰 구축에 대한 과제와 함께 유연한 핵심 기금 지원의 필요성과 행정적 절차 간소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앉은 자리가 부족해 서 있는 사람들로 뻘뻘했던 유엔처치센터에서 여성기금을 지원하는 네덜란드 외교부에서 페미니즘 운동의 생생한 경험을 깊이 경험하고 학습하며 성찰한 사례와 함께 현재의 불충분한 수준에서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기금이 훨씬 더 많이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신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집중도가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의 이모저모

포럼 외 아르메니안 문화원이 주최하는 아티산 페어도 방문하였습니다. 아티산 페어는 아프간 여성 기금, 액션에이드 나이지리아, 개발 여성 권리 협회, 성 평등 네트워크 등이 함께하는 전 세계 장인들의 상품과 전시품을 구경할 수 있는 부스입니다. 특히 대만에서 온 여성 시장님이 농촌 지역 여성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며, 직접 수공예품을 함께 만들며 홍보하는 모습이 신선한 현장이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와

뉴욕에서의 출장을 반추해보니, 언젠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말하기 조심스러운 <페미니즘>, <여성운동>, <성평등> 키워드를 숨 쉬듯 많이 듣고 내뱉었던 여정이었습니다. 성평등 이슈와 여성운동이 전 세계 변화를 추동했다는 현장감이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후원처, 중간지원조직, 지원단체와 활동가들의 경험담과 고민, 도전 과제와 성찰을 통해 새로운 영감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포럼 현장에서 눈빛을 빛내며 여성운동을 위해 애쓰는 이들, 이들을 응원하고 기꺼이 지원하기 위해 분투하고 기금을 조성하며 변화의 물결을 만드는 동료들을 보며 앞으로 한국여성재단이 이어나갈 좋은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글 - 지원사업2팀 장근영



We are Future Makers 3기 오프닝 파티 : 우리의 미래는 달라야 하니까!

현장 속으로



자립은 홀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We are Future Makers>는 아동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이후 자립을 시작하는 여성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2022년 25명의 1기 참가자와 함께 시작해 올해 3차년을 맞아 30명의 3기 참가자를 선정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We are Future Makers>는 진로 역량과 더불어 심리, 정서, 사회적 지지망 확보 등 통합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진로를 탐색하여 그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기 관리, 일의 탐색, 인생 설계에 초점을 맞춘 10회의 개별 프로그램과 함께 맞춤형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하자센터에서 We are Future Makers 3기의 오프닝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오프닝 파티는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운영하고 있는 하자센터, 진저티프로젝트, 그리고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샤넬코리아의 축하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자립은 홀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기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있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자립은 홀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기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있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We are Future Makers 프로그램은 여성 청년들이 다양한 진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에서 나아가 통합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며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앞으로도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

이어서 2기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 <We are Future Makers: 우리의 궤도, 삶을 써 내려갈 용기>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립 준비 여성 청년들의 삶과 꿈을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한국여성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이자 2기 참가자인 우디, 애옹, 제(닉네임)가 3기의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오프닝파티에 함께했습니다. 작년 여름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끈끈한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경험과 10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시작하는 3기 참가자들에게 기대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모나드움 임태인 대표의 진행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워크숍 '시작하는 날, 응원하는 날'이 진행되어 첫 만남을 가진 3기 참가자 30명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수평적 & 상호존중적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낯설고 어색했던 사이가 함께하는 관계를 시작하는 공감과 기대로 유대의 첫발을 내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프닝 파티를 시작으로 참가자들이 자립을 위한 내면의 힘을 기르고, 진로를 탐색하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기 위한 10회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과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그룹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 생활, 의료, 주거, 취미 등 필요한 영역에서 각자의 계획에 따른 성장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자립 지원금도 전달되었습니다. 8월 말에 진행될 클로징 파티까지 여름 내,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기 돌봄(Self-caring), 진로 탐색(Work-mapping), 삶 디자인(Life-design)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기, 2기에 이어 3기로 시작된 We are Future Makers!

참가자들이 We are Future Makers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립을 위한 나의 행성 뿐 만 아니라, 참가자들 간에 함께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우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 응원합니다!

2023년 2기 참여자 후기 중에서

“은”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3개월의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막상 참여해보니 너무 재미있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정보와 힘도 얻고 자립에 대해 알고 싶었던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되어 좋았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이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을 통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백밤”

퓨처메이커스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내 세계를 더 넓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멘토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각 직업과 직무도 알 수 있었고, 더불어 저에게는 **비교와 조바심을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립청년들을 위해 좋은 기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 자립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폴리”

가정위탁아동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서 **외로움과 아픔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배울 수 있었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응원해주시는 사회에 혼자 떨어진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고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글 - 나눔기획팀 박정아, 지원사업 1팀 박지은

2024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킷오프! : 기억과 기록, 여성운동의 역사로

현장 속으로



킷오프 미팅

쌓아온 시간들은
기억 속에 희미해져 가지만,
우리의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킷오프 미팅이 6월 20일, 플랫폼 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킷오프 미팅에는 올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함께하는 총 6개의 여성공익단체 담당자들과 후원처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 노지은 총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단체별로 이어질 아카이브 작업에 기대와 꿈을 안고 모인 참가기관 및 관계자들은 작년에 진행된 사업이야기를 담은 <세상을 바꾼 우리의 역사> 영상을 시청하며 킷오프 미팅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쌓아온 시간들은 기억 속에 희미해져 가지만, 우리의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작년에 만든 단체 아카이브들을 차례로 공유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함께할 참석자들이 이 사업의 필요와 의미를 되새기는 감동이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은 단체별로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아카이브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를 마련하며,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운영하여 단체의 역사 및 활동 자료의 지속가능한 활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디지털 아카이브 기반 구축뿐만 아니라 고도화, 확산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해 의미 있는 기록들을 전 세계 곳곳에 알리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6~7월에는 아카이브 센터가 진행하고 여성문화네트워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참여하는 6주간의 디지털 아카이브 기본교육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4개월의 전문 아카이브스트 컨설팅을 통해 참여단체들의 아카이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2년차 사업을 진행하는 또하나의 문화, 막달레나공동체, 십대여성인권센터, 울산 YWCA는 더레코드와 아카이브 고도화 교육이 진행되어 아카이브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고 비 전자파일(실물기록)들을 전자파일로 디지털화하며 잊혀질 수 있는 기록들을 살려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하는 여성운동공유회로 그간 나눈 단체 이야기들을 보다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과정에서 단체들의 활동과 의미가 잘 정리되고 역사로 소중히 보관되기를, 참여하는 단체와 실무자들에게도 기록의 힘을 더욱 경험하고 활동에 더 힘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p>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빵장</p> <p>여성공익단체에서 했던 활동들이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하고, 참여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여성운동의 선후배들,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p>	<p>막달레나공동체 김정하 팀장</p> <p>이태원 사랑방과 40여 년 시간 동안 갖고 있는 물건들을 수월하게 디지털화 할 수 있었는데, 사전에 잘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남은 문건들도 어떻게 디지털화 해야 할지 가닥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여성문화네트워크 황창화 이사</p> <p>아카이브의 형식과 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여러 단체의 발표를 들으며 열정이 부족했구나 반성했습니다. 후손에게 어떤 기록을 물려줄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우리 여성사의 땀방울을 잘 담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p>
--	--	---

글 -니눔기획팀 박정아, 지원사업 1팀 최송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내 손안에! 아카이브센터 정혜지 센터장을 만나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아카이브의 힘!’

한국여성재단은 여성공익단체의 활동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유 스토리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로 가속화될수록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공익 활동들을 정리하고 확산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여성공익단체 활동가들에게 디지털 아카이브 교육, 기록물 관리 전문가의 컨설팅과 함께 아카이브 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여성공익단체로서의 정체성과 역사를 반영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며 공익단체 활동가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우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성평등이란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움과 힘이 되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카이브센터 정혜지 센터장님입니다. 에너지 넘치고 밝은 미소로 아카이브의 기억의 공유, 지혜의 발견을 담은 정혜지 센터장님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Q. 정혜지 센터장님과 아카이브센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카이브센터장 정혜지입니다.

아카이브센터는 한국문화정보기술이라는 기록관리 전문 기업에서 사내 연구소 벤처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한국문화정보기술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기록관리 A to Z를 수행해 온 회사입니다.

199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된 공공기록법과 동감내기로, 가장 오래된 기록관리 전문기업으로 볼 수 있죠. 기록관리와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해 DB구축, 시스템, 전시, 웹콘텐츠, 출판까지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아카이브를 만들어 오면서, 좀 더 다양한 분야

에서 저마다의 아카이브를 만들고, 이 아카이브들이 모여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식을 공유, 지혜를 발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아카이브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정보기술의 콘텐츠 서비스팀에 근무하다가 2020년 사내 연구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지금의 아카이브센터가 발족하면서, 누구나 쉽게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자 컨설팅 회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여성재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셨는데요. 재단과의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셨나요?

재단과의 인연은 2022년 5월에 시작이 되었어요. 한국여성재단으로부터 아카이브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전화를 받았습시다. 이 통화를 계기로 몇 번의 미팅을 진행하면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재단과의 미팅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간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당시 재단에서 여성공익단체가 스스로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중요한지 많이 질문하



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강조했던 부분은 ‘지속가능성’이었어요.

또한 아카이브를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나의 일기를 쓰는 것과 같아요. 누가 내 일기를 대신 써주는 것이 아니듯이 나의 일과에서 느낀 감정이나 경험을 쓰는 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기를 대신 써주는 것이 아니라 일기를 쓰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것, 아카이브 만들기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카이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즉 자신이 속한 단체의 기록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지, 고유한 단체의 업무로 만들 수 있을지 역량강화를 하는 것이 키포인트였습니다.

Q.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카이브센터 역할을 소개해 주세요.

아카이브센터 역할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문성 제공입니다. 전략 방법론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쉽게 풀어서 핵심적이고 최대한 원리만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도구, 즉 시스템 제공이에요. 정보를 어디에 잘 모아야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죠. 시스템에 기록을 등록해서 샘플링을 하기도 하고, 분류체계를 만들어서 검색에 도움이 되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물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알려드렸어요. 이 과정에서 참여한 여성공익단체 담당자 선생님들의 변화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1차년도(2023년) 진행 당시, 4개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각 단체마다 아카이브 담당자가 배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분야기 때문에 담당자 선생님들이 가졌던 아카이브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이 컸었어요. 그런데 교육과 실습을 거쳐 역량을 함께 강화하면서, 사업 막바지에는 거의 준전문가가 되어 있었죠. 자기 단체의 기록에 대해 주도권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Q.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진행 하시면서 특별히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아카이브 협력 모델을 시도하였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네 종류의 주체가 모여 있는 선순환적인 모델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등 ①후원조직, 한국여성재단과 같은 ②실행조직, 실행조직과

함께하는 ③전문가집단 또는 전문 기업 ④여성공익단체들 선순환적인 구조예요. 서로가 각자 잘 하는 일을 자기 자리에서 발휘한 결과입니다. 좁게 보면 4개의 아카이브이지만 넓게 보면 여성공익단체가 스스로 기록자산을 관리하고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눈앞에 내놓은 모델인 거예요. 아카이브란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된 협력 모델, 누군가 하나가 거대한 권력이나 파워로 끌어올린 일방적인 이어짐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과 상황에서의 의지와 요구들을 합쳐 아카이브 결과물로 만들어 낸 거죠. 모두가 함께 명확하게 이뤄낸 것이, 어떻게 보면 행운과 기회가 만들어준 결과라고 생각해요.

Q. 센터장님이 협업하시면서 느끼셨던 한국여성재단은 어떠셨어요?

한국여성재단은 자립도가 높은 기관이라고 느껴졌어요. 자생을 위한 노력을 하며 거시적 시각으로 한국 사회 여성 문제와 성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여러 기업이나 파트너 단체가 함께 한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공익단체가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도 역시 ‘자생’과 ‘자립’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주었어요. 지속가능한 아카이브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자신의 서사를 한 해 한 해 쌓아 나가며 결국에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게 하는 것. 아카이브와 한국여성재단의 여러 정책에 닮은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Q. 여성재단에 바라는 점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아카이브 협력 모델의 지속가능성이예요. 어떤 분들은 아카이브를 일회적인 콘텐츠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카이브가 만들어진 기본적인 존재 목적은, 우리의 활동의 산물인 기록을 누군가가 잘 쓰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성공익단체의 활동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아카이브 속에서 꾸준히, 또 서사로서 전파되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과 차별화가 일상이 된 요즘 우리는 끊임없이 대체 불가능함, 단순한 콘셉트가 아니라 켜켜이 쌓아온 경험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자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간들이 모이면 세상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아카이브는 우리의 고유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도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터뷰 - 나눔기획팀 성예현

뜨거움보다 따뜻함,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연대치대여동문회 주역들을 만나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연대치대여동문회 양육미혼모돕기 모임
김희성 총무, 이영순 회장, 김소양 고문
(사진 왼쪽부터)

한국여성재단은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With Mom Project를 2018년부터 7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개별맞춤형 교육 및 자녀돌봄 지원을 통해 양육미혼모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육미혼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며 양육미혼모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는데, 오랜 기간 양육미혼모 지원사업에 나눔으로 함께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소식지에서 양육미혼모 지원사업의 큰 힘이 되어주신, 든든한 지지자분들인 연대치대여동문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연대치대여동문회 분들을 대표해서 만난 김소양 고문님, 이영순 회장님, 김희성 총무님 세 분의 인터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Q. 인터뷰에 함께해주신 세 분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영순 회장

연대 치대 17기, 목동 예치과병원 원장 이영순입니다. 현재 기부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베스트덴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희성 총무님과 함께 모임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 김희성 총무

연대 치대 19기, 김희성입니다. 현재 기부 모임의 총무입니다. 저희 3명은 연대 치대 선후배 사이로 오랜기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고문님은 전 연대치대여동문회 회장님이셨고 지금은 든든한 고문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 김소양 고문

연대 치대 15기, 사당동에 위치한 새연세부부치과의원 원장 김소양입니다. 처음에 좋은 취지로 기부 모임을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부 행사가 침체될 수 있는데 지금까

지 이어져 오는 데는 이영순 회장님과 김희성 총무님의 역할이 컸어요. 후배들에게 좋은 취지를 알리고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했고 덕분에 기부하는 회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잘 이어가보자라는 의지를 다지고 함께 하며 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주 보는 기회도 만들었구요.

Q. 2017년부터 오랜기간 양육미혼모를 위해 연대치대여동문회 회원분들이 기부를 해오셨는데 재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 김소양 고문

7년 전 제가 연대치대여동문회 회장이었을 때 김진 교수님과 선배들이 좋은 행사를 하면 어떨지 의견을 나눠주셨었어요. 그때 한국여성재단에서 방문해 주셔서 기부와 관련된 소개를 해주셨고 신규 회원 기부자를 위한 홍보와 모집으로 본격적 기부활동이 시작되었어요. 시작은 김진 선생님과 선배들이 먼저 하셨고 좋은 의미가 전달이 되어 부응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서여치(서울여성치과의사회) 회장을 하면서 다른 대학의 선생님들이랑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여동문회에서의 기부 행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의미도 있고 좋은 취지를 잘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Q. 그동안 양육미혼모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의 토대가 되는 지원을 이어와 주셔서 그 의미가 깊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구요. 양육미혼모 지원에 관심을 갖고 기부를 지속하게 되신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 이영순 회장

연대치대여동문회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부에 함께했는데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투명한 과정 설명과 지원한 사업을 통해 진행된 좋은 사례 결과를 들으면서 지속해서 기부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예전 어려운 시절에 어린 아이들이 해외 입양을 많이 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2000년 무렵에 미국에 2년 거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지역은 한국인 입양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입양이 돼서 좋은 양부모에게 양육되어 훌륭하게 성장하고 자립한 경우도 있지만 파양되거나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많이 향상 되었잖아요. 양육미혼모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보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양육미혼모 지원에 관심을 갖고 기부를 하게 되었어요.

Q. 오랜기간 한국여성재단에 기부를 해주시면서 연대치대여동문회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김희성 총무

작년에 우연히 넷플릭스를 통해 '조용한 희망'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미국 드라마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시대의 이야기이며 미혼모의 이야기에요. 가족폭력, 알코올중독인 아이 아빠의 정신적 학대를 피해 딸을 데리고 도망치며 엄마로서 세상에 정착해 홀로 육아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싱글맘의 성장을 다룬 드라마예요. 누군가 선의의 도움으로 정말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면 그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대치대여동문회에서의 기부를 통해 간호조무사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보여 많이 뿌듯했어요.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전파할 수 있었어요. 후배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동참하기를 권유할 수 있었고 함께 하고자 하는 회원들도 많이 늘어 감사하답니다.

Q. 올해 양육미혼모를 위한 누적기부금, 1억원이 달성되어 기부전달식으로 재단에 모시기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꾸준히 많은 회원들과 나눔으로 함께해 주고 계신데, 누적 기부금 1억원 달성을 맞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영순 회장

1억을 모았다는 것은 저희 스스로도 놀라워요. 매년 꾸준한 기부 참여를 통해 1억 원이 달성된 것이 의미가 있어 저희도 함께 모이려고 해요. 동문들에게 기부에 대한 성과를 냈으니 잘 지키자는 메시지를 주고자 다른 행사를 준비하

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 기쁨도 나누고 칭찬도 하며, 기부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한 좋은 결과를 알리고 이 결과가 마음의 동화가 되어 더 많은 회원들이 좋은 일에 함께 하길 바라요.

* 김소양 고문

몇만 원의 기부가 모여 큰 돈이 되어 1억원을 달성했어요. 이런 뜻을 더 키워야 해요. 우리 연대치대여동문회 선·후배들이 더 많이 함께하면 어떨까, 우리 직업을 가진 분들 이라면 마음만 있다면 기부를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어 서울에 있는 타 대학 여성치과의사들 모임에도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해요. 우리는 운영진으로서 감독자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동문들의 선의를 모았기에 기부금이 잘 전달되게 하는 감독의 기능이지요. 한국여성재단에서도 기부금을 투명하게 잘 관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Q. 한국여성재단은 많은 기부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대치대여동문회에서 생각하시는 "기부는 OO이다" OO에 들어갈 단어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김희성 총무

기부는 따뜻함이다. 마음의 따뜻한 온기라고 생각해요. 따뜻함이 사회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추운 겨울 햇빛 한 조각이 비치면 따뜻해지잖아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Q. 마지막으로 올해 한국여성재단이 25주년을 맞이했는데, 재단의 활동에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소양 고문

'냉정한 이타주의자'책 속의 내용인데요. 아프리카 기부사업에서 원반 펌프 사업이 있었어요. 원반 놀이를 통해서 펌프 작동을 해 식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좋은 취지로 캠페인을 통해 원반 펌프를 마을마다 설치했는데 아무도 사용을 안했어요.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 식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사업 프로그램 진행 시 적절하게 상황을 고려하여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부를 하면 정말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되길 바라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초기 재단이 만들어진 의미를 잘 담아 여성뿐만 아니라 더 넓은 시각과 영역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인터뷰 - 지원사업 2팀 장근영, 나눔기획팀 성예현



미래여성 NGO 리더십 과정 연구 보고회 및 장학증서 전달식

2월 27일, 2023년 장학생들의 1년여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연구보고회와 17기 장학생 12명, 18기 장학생 8명의 장학증서 전달식이 성공회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 유한킴벌리 손승우 지속경영부부장, 성공회대학교 김경문 총장, 김영선 실천여성학 주임교수,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대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미래여성 NGO 리더십 과정은 여성단체 여성활동가 개인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출발하였지만 18년을 지속해오면서 지역별, 부문별 여성활동가 간의 이해와 통합을 높이고 전체 여성운동의 역량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 여성 운동 리더 그룹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유한킴벌리 여성NGO 장학사업은 성평등한 사회 조성, 여성운동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출발하였지만 18년을 지속해오면서 지역별, 부문별 여성활동가 간의 이해와 통합을 높이고 전체 여성운동의 역량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 여성 운동 리더 그룹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유한킴벌리 여성NGO 장학사업은 성평등한 사회 조성, 여성운동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SNS 이벤트 & 제39회 한국여성대회 부스 참여

2024년 3.8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주제를 반영하여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짐을 담은 SNS 댓글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686분이 참여하여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눌수 있었습니다. 3월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39회 한국여성대회에 한국여성재단 홍보 이벤트 부스가 함께했습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소개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투호놀이 &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뜨겁고 빛나는 여성들의 연대를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SOS기금 모금 캠페인, 여성폭력 STOP! 안전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SOS(Save Our Safety)기금은 여성이 안전하고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기금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해피빈에서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SOS기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527명이 동참하였으며 모금액은 7451,000 원이었습니다. SOS기금은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회복 및 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전국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사업수행 안내

3월 14일, 202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선정된 13개 단체가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2024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서 숙지해야 할 일정들과 회계 지침을 듣고 단체와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많은 단체들이 공감한 이슈는 민간 지원 축소 또는 삭감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한 공유와 논의 뿐만 아니라, 단체들이 겪고 있는 다방면의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나누며 공감하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폐암환우회와 함께하는 Lung Live the Queen 캠페인 출범식

3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코엑스몰 라이브 플라자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폐암환우회와 여성 폐암 인식개선을 위한 Lung Live the Queen(렁리브더퀸) 캠페인 출범식에 함께했습니다. 출범식 현장에서는 여성 폐암 위험인자를 알아보는 거꾸로 다트게임, 인생네컷 이야기 등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되어 코엑스몰에 방문자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024 신혼부부 나무심기 사회리더 초청 참석

3월 31일,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시민사회 리더로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024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장수 숲환경 공익 캠페인으로 2022년 3월 발생한 동해안 대형 산불 피해지에서 진행되어 더 의미 있는 행사 참여였으며 100쌍의 신혼부부들과 함께 2년생의 소나무를 심으면서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위민인이노베이션 성평등 사회 실현 위한 업무협약 진행

3월 27일, 위민인이노베이션과 다양한 여성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지는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앞으로 두 기관이 여성기업인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교류,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 등에 협력하며 여성 임파워먼트 및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하였습니다.



Brave Changes 여성운동지원사업 중간보고회

4월 16일, 한국여성재단 교육장에서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 Brave Changes 3개 사업 중 여성운동 지원사업의 중간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3년 중장기사업으로 선정된 5개 단체가 각각 진행된 사업과 성과, 애로 사항 등을 공유했습니다. 국내 여성운동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 확산하고자 하는 목표로 첫 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시작의 초석을 다지고 고군분투하며 경험과 배움이 있는 시간이었음을 공유하고 함께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리대 걱정없이 월경할 수 있도록, 힘내라 딸들아!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기념하여 편견 없이 생리를 맞이하고 생리에 대해 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평등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생리교육 키트 지원을 위한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목표모금액 9,900,000원이 조기 달성되어 생리대 파우치와 월경권 교육용 엽서 제작이 진행되었으며, 유한킴벌리에서 기부한 생리대와 함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네오 제인 마시시 보츠와나 영부인 방문

6월 5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네오 제인 마시시 보츠와나 영부인 대사 일행이 한국여성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한국여성재단 활동 소개, 여성 역량강화 활동 공유, 한국여성재단 초대 이사장 박영숙 홀 투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여성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니셔티브에 대한 상호 관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화-유한킴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교육과정 수료식

6월 27일, 여성활동가에게 여성주의 리더십 향상과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및 네트워크의 장을 열어주는 15기 이화-유한킴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과정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반과정과 집중과정에 참여하는 여성활동가이자 교육생 60명과 한국여성재단, 유한킴벌리, 이화리더십개발원 관계자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더욱 성장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여성주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지키고 지속가능성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 We are Future Makers 결과보고서 발행

2023 자립준비여성 청년 역량강화 지원 사업 We Are Future Makers 결과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보호 종료 이후 여성 청년들이 자신을 돌보며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 프로그램과 사업 소개, 네트워킹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 한 자리에 모인 홈커밍데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023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결과보고서 발행

202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전국의 여성공익단체를 대상의 자유주제 사업, 여성과 아동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및 차세대 여성운동 사업, 수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12개 단체를 지원하고 183,948명이 참여했습니다. 각 분야별 여성단체들의 주요 활동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2023 이주여성 리더발굴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발행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주여성의 잠재력 개발 및 리더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 2023 이주여성 리더발굴지원사업 결과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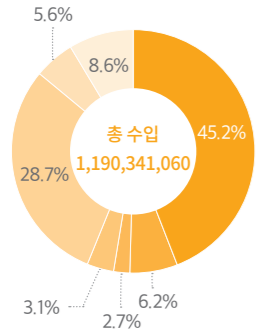
전국 곳곳에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펼치며 자신만의 역할을 만들고 다져가는 이주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2023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 발행

2023년 조직 운영 및 주요활동과 모금, 지원성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재단의 주요 활동은 기부문화 확산과 체계화, 성차별 제도와 문화의 변화, 여성인권보장, 여성임파워먼트, 다양성 존중과 돌봄사회 지원, 대외협력, 조직문화 등 영역별로 주요 활동과 결과를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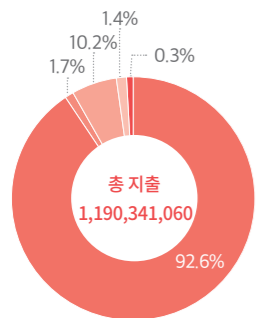
수입과 지출



- 기업지정기부금 45.2%
-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6.2%
- 여성건강지원기부금 2.7%
- 특정명의기부금 3.1%
- 일반기부금 28.7%
- 후원금 5.6%
- 기타수입 8.6%

항목	내용	금액 (단위: 원)
● 기업지정기부금	기업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100인기부 릴레이 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537,925,136
●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카드포인트 기부 ·성평등기부모금캠페인	74,286,769
●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32,076,600
● 특정명의기부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36,420,000
● 일반기부금	프로스페라기금, 해피빈	341,615,676
● 후원금	협찬금 등	66,169,600
●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환차익 등	101,847,279

총 수입 1,190,341,060 원



- 모금사업비 0.3%
- 배분사업비 92.6%
- 홍보사업비 1.7%
- 경상비 10.2%
- 시설비 1.4%
- 운영손실 -6.2%

구분	항목	내용	금액 (단위: 원)
고 급 과 업 비	● 모금사업비	후원의밤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3,007,202
	● 배분사업비	1. 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수시지원사업(개인모금) 여성운동생태계조성사업(샤넬재단) 2. 여성인권보장 여성건강지원사업 봄빛장학금(봄빛기금) 3. 여성 empowerment 여성 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교보생명) 자립준비여성청년역량강화지원사업(샤넬코리아) 4. 다양성존중 및 돌봄사회 지원 양육미혼모지원사업(연대여성치과의사회) 이주여성경제적자립지원사업(JP MORGAN) 한부모이주여성역량강화지원사업(동서식품) 5. 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1,102,171,976
	●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0,570,150
	●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21,884,379
	●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6,159,506
운영비	운영손실	-73,452,153	

총 지출 1,190,341,060 원

기부안내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각계각층의 리더와 124개의 여성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모금과 배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국여성공익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W기금

모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재단 활동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주제별 사업기금

여성안전 및 폭력 예방, 여성건강지원, 해외여성청소년 자립 및 교육 지원을 위한 기금입니다.



특별기념일 나눔

돌, 생일, 결혼, 추모 등 특별한 기념일에 나눔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기부

기업 사회공헌, 임직원 나눔, 현물 기부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부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실천입니다.

온라인 기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 접속, 기부방법 클릭 후 신청

나눔계좌(무통장입금)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 농협: 369-17-005283 | 국민: 079-01-0405-971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창립 이래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 여성입니다”라는 확신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재단은 모금과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T. 02-336-6364 F. 02-336-6459 E. womenfund@womenfund.or.kr H. www.womenfund.or.kr